8月25日 (月)
1952年 (昭和27年)
發行所
基督新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 吳允台
主筆 田榮澤

基督新報
KOREAN CHRISTIAN NEWS

聖句

형제의 궁핍함을보고도 도아줄 맘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마음에 거할가보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
요한일 3:18, 9

27.9.-4
支部上野圖書館

總會性格의神學的確立
講座講演으로始終一貫
聖山恩峽을哀惜히散會

재일본 한국기독교총회는 지난十八日오후三시부터 二十二日(今)正午까지의 五日간 기후시(岐阜市) 유가족 회관에서 하기수양회를 열었다。

총회는 삼하四十여교회를 연합하여 초교파적 성격을 표방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나 그 성격을 명백히할 단계에이르러 금년수양회의 목적을 「우리신앙의 신학적 확립」에 두고 「개혁파신학의 특색」이라는 주제하에 신호 개혁파신학교교장 오가다 미노루(岡田稔)목사의 신학강연 연속강좌로 일관한 하였다。

청신기도회와 경건회는 총회내의 목사들이 분담하고 오후 신학연구회와특별 강연은 한국기독교연합회 총무유호준목사와 본사주필 리영택목사가 두고 이 담당하였는데 첫날 전목사의 뜻깊은 설교는 많은 감명을 주었고 유목사의 二회에 걸친 「세계교회운동과 한국교회의 현상」에 대한 열있는 강연은 깊은 반성과 시준을 주었다。 전목사는 기독교는 예수께서 육을 입으신일과 십사가로 나타난 절대겸허에 근본요소가 있고 교회의 분쟁분구는 이정신을 거스려 지도자가 먹예욕과 야심에 빠지는 까닭이라는 요지의 말을 하였고 유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력해진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시 주일날과 재일과 도박도박 (麻) 어진 까닭이라고 한말과 사당이 없어진 까닭이라고 한말과 어울러서 교리문제보다도 교회운동에는신앙과 사랑이 제일이라는것을 깊이 느꼈다。 기밀게 五일동안 많은 수확을 길우고 화기애애한 중에 예정대로 끝났다 총회 수양회에 처음부터 마즈막까지 참가 하였던 모씨는 「조국이 수난중에 있음을 거이 잊어버리다싶이 五日간이나 한적한 장소에서 신앙반성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은것은 행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총회통일에 중점이 있었으나 초교파적 성격이 유지 되기 바라며 들는말을 「長良」가와 우(鵜)가치 그대로 삼켜 버리지 말고 각자의 받은 은총에 따라 신앙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재일본 대한기독교총회 하기수양회

社說
祖國의饑饉과 慘狀
—祖國同胞를 도웁자—

1

사랑하는 조국은 동란 삼년에 황폐할대로 황폐 하였고 이제 지난해의 흉년과 금년의 한재로 큰 기근을 당하였다。 도시의 골목 골목에 늙은이어린것들이 굶주려 쓰러져있고 농촌에는 황막한 벌판에 장정이 기진하여 너머져 있는 혐편이란다。 아아! 조국은 사천년 역사이래에 처음되는 참화를 당하고있다。

뜻밖에 당하는 공산군 침략전란、거기에 따르는 무서운 대량학살과 거기에서 생기는 수십만 고아들의 눈을 뜨고볼수없는 정경은 우리기억에 새롭고 아직 그대로 계속하고있는비극인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흉년과 기근으로 굶어죽는 사태에 있는것을 어찌하느냐。

2

조국의 이 대환난을 어찌할것이냐 이제 누구의 책임이란 말이냐 무슨 앙화요 형벌이란 말이냐 하는 한가한 시비도 덮어놓고 해결책을 긴급히 생각하여야할것이아니냐。

사변이 끝어가고 재난이 게속함을 따라서 내외 동포들의 관심과 걱정은 멀리 맞은편언덕의 불처럼 늙은 어버이의 긴병처럼 무관심 해지고 식어가까운 동포끼리 서로 한피를 아닌가 내 형제 노누고 서로 혼이갈고 마음이 상하고 생사와 흥망의 운명을 큰 죄가 되기 바라며 들는말을 구제와 한국교회 신앙적 기자의 질문 명 하였다。 훈트에서 독교의 감사

3

조국 동포의 이 급박한 고생명을 삽는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이른 난을 구할자 누구냐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어찌 남만 바라볼것이냐 지금은 온 세계가 다 환난가운데 있고 어떠나라나 다 각각 어려운 문제가있다。 우리가 아무리 무력하고 어렵다고 한들 언제나 남만 의뢰하고 바라볼수 없는것이 미국과 그밖에 여러나라 수십만 고아들의 눈을 뜨고볼 수없는 정경은 우리기억에 새롭고 아직 그대로 계속하고있는 참혹한 재난이 게속하고 있는것을 어찌하느냐 구하는것이 마땅하다。

4

동포중에서도 사랑과 정의로운기근을 구할자 누구냐 어려운 일을 힘써야 다만 동족 언저 나서서 이 일을 할것이다。 예루살렘에 기근이있 선의 노력 고 기독교인밖에 또 누가 있위로하고 온 기독교인 사도바울은 교리의 투계교회에 게 찬성하고 저를 우리의 식량을 마련하는 이른 기근을 이 일을 위하여 나라 싸와나갈 와 일본에서까지 각교회 신자

5

우리의 식량을 마련하는 이른 기근을 이 일을 위하여 나라 싸와나갈 와 일본에서까지 각교회 신자

韓國

지난 十五 스웨덴 룬트 교 신앙직제 한국대표로 는 한국장로 상권목사는 제와 한국교

咸

심계원장 (총 시든 사려영 이번에 부대 되신데 대하 놀은하고 파 생각하는것이 은 말할것도 있고 사려가 욱이 저를

咸台永牧師 副大統領當選

합례영 부대통령

심계원장(審計院長)으로 계시든 함태영(咸台永) 목사께서 이번에 부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되신데 대하여는 국내 국외를 불론하고 과연 뜻밖의 일로 생각하는것이오 우리 기독교인은 말할것도 없고 누구나 뜻있고 사려가 깊은이는 다 크게 찬성하고 기뻐하는 바이다 특히 저를 평소에 모시고 가까이 시시어 그의 지조와 신념을 잘 아는 우리는 충심으로 기뻐하며 만수를 들어 축하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七十七세의 장수를 축복해주신것은 오늘날에 이러한 중임과 아울러 영관(榮冠)을 주시려는 뜻이 있든것을 알수있다. 인격적으로 깨끗한 목사일뿐아니라 이미 기미년이래로 나라를위하여 결식랑문제보다도 정신문제로 심령문제이니 우리사회가정신적으로 혼난이 극하고도 여지없이 부패한 이때에 깨끗한 원천이 되고 정의의 기초와 기둥이 든든이 서서 썩어저가는 사회인심을 하루바삐 숙청하지 아니하면 나라와사회는 스사로 붕괴직지경인데 이제 함목사님 같은 신덕이 높고 지조가 굳으신 분은 목사중에도 얼지아니하시니 능히 관계와 일반국민의 사표가 되시고 나아가서는 위로 대통령에게 바른 진언을하고 아래로 정부와 공무원의 부패를 엄하게 숙청하심을 믿는다. 소름이 그맛을 잃으면 차라리 쓸데 없어 없는것만 못하리니 함부대통령이 이 사명을 못하면 나라를 위해서는 큰 불행이오 교회를 위해서는 큰 수치가 될것이니, 차라리 안나섰든것만 같지 못할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히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심을 믿고 축원하는바이다.

韓國敎界問題解決은不遠

現在世界思潮에逆行 인듯하나

長老會總會金尙權牧師談

지난 十五日부터 월말까지 스웨덴 룬트에서 열리는기독교 신앙직제(信仰職制)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기 위하여가는 한국장로회 총회 총무 김상권목사는 이번회의의 중심문제와 한국교계의 현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같이 설명하였다.

룬트에서 열리는 회의는 기독교의 같은신앙을 가진 각파를 에큐메니즘에 의하여 하나이목표에 이끌자는 목적에서 각교파 신학자와 목회자를 모아 의논하여보자는데서 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사실 에큐메니즘에는 역행하는 현상 같으나 나의 소견으로는 수년내로 세계교계의 지향하는 노선에 섭것으로 믿는다 고려신학계통이 문제되었든때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조선신학계통과의 문제도 몇해만지나면 해결될것이다. 다만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우리를 바루 이해하지 못한데문세가 남을것이다. 우리는 처음 선교 받을때보다 장성하였다는것을 알아주면 좋을 줄 안다.

이번회의에 갔다와서는 돈 본것을 각계에 인식시키도록 노력 하련다. 많은 선배들이 국제회의에 갔다와서는 공개하고 강조하여야할 문제들연구 하고 강조하지 않은것은 유감이었다.

김목사는 룬트회의후 서부독일과 런던을 거쳐 미국에 가서 미시개회의에 참석 하고 十월에나 귀국하리라한다.

中國信徒들의 呼訴文

所위

영국 간다베리-보좌주교 츄-렌폰손박사의 『한국전선에서 국련군이 세균전을 행한 실제 증거를 보았고 중국기독교인들의 보고를 들었다』는 보고가 한때 일반을 놀래게하고 영국 국회에 문제를 이르키려하였으나 처절수상은 일소에 붙인일이 있거니와 그가 밥었다는 중국기독자들의 보고문이라는것은 신교와 구교에서 제출하였다는것인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종국푸로테스단트층의 보고문 중국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세균전쟁의 범죄를 불때 인도와 정의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이같은 잔학한행위를 중지하도록 세계기독교도들에게 호소하는것이다.

△ 캐톨릭교도들 공동서간 [조국화 교회와 평화를 사랑하는 중국캐톨릭신도들은 기독교정신과 양심에서 아메리카의 세균전에 항의하는것이다. 인류의 존엄과 정의와 그리스도의복음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세균병기의 사용금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의 캐톨릭파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 대하여 이같은 범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단결하여야할 것을 호소한다.]

△ 이상은 공산주의 정권에서 상투적으로 하는 거짓 선전의 재료로 기독교도의 기록을 빌어서 공산당 앞잡이 허수아비 기독교단체를 시켜서 한것이라고 문제시하지 않는다.

差別待遇撤廢하라

美NCC中委決議

미국 푸로테스단트 二十九교파가 참가하여 구성된 미국 NCC 중앙위원회에서는 교회와 사회에 있는 차별대우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그 결의문에 의하면 종래 교회에서 일반 세속기관과 같이 고용인을 차별하여 교육 보건 주택 휴양등에 있어서 차별하여온것은 비난받을 일이라 하고 신학교나 예배장소에서의 이런일은 사탕의 복음을 전한다는 본의에 반대됨을 알고 이것을 제거함과 동시에일반 사회에 대하여도 이 모순을 지적하고 새로운 지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다음의 점을 강조하였다.

(一)차별대우는 일부국민을 언제나 비굴케한다.

(二)차별대우는 도덕상으로나 심리상에 열등감을 이르킬뿐만 아니라 폄등설(下等說)에 실제성을 상실케한다.

(三)수백만 시민이 자유로운 생활을 세움에 지장이 된다.

(四)어떤 시민은 공포와 질투의 결과로서 스사로 차별하게 된다.

(五)차별대우는 인종적 반감을 더하게하여 인종적 쪽동을 이르킬 원인이된다.

人事

金仁洙牧師 歐州旅行을 마치고 지난十一日 歸國

黃聖秀氏 백발후十字會 [illegible] 하였다가 十七日歸國

金成濟牧師 臨終에서 [illegible] 中에

在日僑胞敎會視察後二十五日歸國

李鍾聲牧師 米國에 [illegible] 六日 出發

金良善牧師 基督敎博物館用 [illegible] 十一日歸國

金尙權牧師 스웨덴旅行後次 [illegible] 日 東京港發 十三日出發

聲望室

영국 수병 두사람이 일본인 운전수의 목을 비틀고 돈 一千七百원을 강탈하였다는 사건으로 요새 상당한 국제문제가 되고 신문지상에서도 떠들고있다. 일본 재판소에서 징역二년의 언도를 내린데 대하여 영국 이덴 외상이 항의를 제출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는 적지아니한 문제가 되었다 돈의 액수는 얼마 안되는 적은 사건이나 그런것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면 독립국가의 체면을 유지할수 없다는것이 일본사람들의 주장이다.

일본군인이 예전에 중국땅은 때가 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것을 보더라도 일본사람은 너머도 일다 너머 우쭐거리는 거야

△ 동경 스가모에 우리동포 이십구명이 전범이란 억울한죄인이 되어 고생하고 있는데 인신보호법에 의하여 석방을 요구하여 송사하였으나 당치않은 이유를 붙여서 되각을 하였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과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염치가 없고 성의가없다.

하나님 敎會一致에努力

톤토에서 信仰職制會議

사무엘 김상권

지난 十五日부터 동 二十九日까지 스웨덴 룬더에서 개최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의 신앙직제회의 (信仰職制會議) 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는 장로회총회 총무 김상권목사 (金尙權牧師) 가 참가한다.

이 회의에는 세계 각국에서 대표二五〇명이 참가하게 되여있는데 지금까지 七五개교파교회에서二百명의 대표가 결정 되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세계교회일치에 관한 연구에 있는데 一九二〇년에 제네어에서준비회의가 열렸고, 二十七년에 로잔누에서 제일회 세계회의, 三十七년에는 에딘바라에서 제二차회의가 있었고, 금번에는 一九四八년 암스엘담에서 창립된 WCC의 一부분으로 개최 되는 것이다. 금번 회의는 주로 직접 교회 신학문제에 관계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 하는 것이다. 그 중심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데 에큐 뜬다면 정교회 (正敎會) 와 성공회 (聖公會) 개울덕파 루로 해스웬트가 각기 가진 교회관을 검토하고 에배의양식 성찬에 관한 문제를 재검하라는 회의의 보고에 귀각 (고려) 하여 결의할 것이라한다.

있는 때문에 건전성을 잃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신앙과 정치의 (교회) 상이점을 구복하고 교회는 확실히 하나가 될수있다는것을 실현 표명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각교파교회 대표자들 모이고 모임 유리할이 없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교회의 회의에 일치점 (一致点) 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그 중심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데 에큐 뜬다면 정교회 (正敎會) 와 성공회 (聖公會) 개울덕파 루로 해스웬트가 각기 가진 교회관을 검토하고 에배의양식 성찬에 관한 문제를 재검하라는 회의의 보고에 귀각 (고려) 하여 결의할 것이라한다.

國際赤十字韓國代表歸國

受難民族에同情集中

회의중의 한국대표들

제十八회 국제적십자총회에 참가 하였던 한국대표 구영숙씨와 황성수씨는 무사히 용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 지난 十五日 도-꾜에 돌렸다.

이번 총회는 까나다 토론도에서 열었는데 七十一개국 대표와 방청은 약七百명이 참가하여 七月二十五日부터 두주간에 걸쳐 각국각민족의 보건문제를 토의 하였는데 북한독재서도 세사람의 대표가 참가하였다한다.

한국측에서는 국제연합 한국대표로 뉴-욕에 있던 임병직씨까지 새분이 참석하여 (싸우는 한국) 이라는 영화등으로서 한국실정을 여실히 소개하여 세계 열국의 깨끗한 이해와동정을 받고 배전 (活躍) 의 원조와 협력의 약속을 받았다.

더욱히 국제적십자 한국소년단 조직에는 기대이상의 원조 육성문제가 약속되었다하며 황성수씨는 까나다 기독교회측의 정원에 의하여 회의 한국과 교회실정 보고강연을 하여 다대한 충격을 이르켰다한다.

六·二五事變에 가신이 追憶記

金玲聲牧師留學

인격과 신앙을 아울러 갖춘 선천동교회 김진수목사는 왜정말년에 장로교총회가 일본 기독교단으로 변하는것을 알아차리고 반대하여 거기 참가하지 않을뿐 아니라 압박과 위협이 자신함에도 불구하고 재북노회를 그냥 계속하여 장로의 총회의 존속을 끝까지 주장하여 도리어 왜인의 가슴을 서늘케 하던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비진리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한번 뜻을 정하면 만난을 배제하고 그대로 실행하는것이 그의 특성이었다 그러면서도 불상한 사람을보면 단발숫이라도 벗어주고 가슴에 이 구되자 불 하고 그 선다. 그 명에서 지 같은 대 않으면 방에서 교회만 일

제일본 한국기독학생총 이종성목사는 지난 八月十六日 미국유학을 떠났다.

이종성 (李鍾聲) 씨는 작년봄에 독일신학대학을 졸업한후 시모노세끼 (下關) 교회에서 교역을 하던바 금번에 까나다장로회의 소개라서으로 미국갈리포니아주 쓱! 하! 신학에서 조직신학을 전공 하기로되었다 씨는 떠나면서 「조국의 전한 말을 외에 나간다는것은 죄송한 가이 있으나 해외에 있으면서 조국 재건 을 말을 간 절이 보수파 연맹에 연맹」에 의 장만 자들을

保守

西亞自 을 것 하나님 하여 도도 교 다면 분노 너희 원수 사랑 바벨 七十 단연 의의 할 이것 되기 에언

님의 형법과 경고라고 직감 (直感) 한다. 이 작금 (昨今) 의 국정 (國情) 말에서 더욱 불안 고민 가운데 떠는 내 신앙양심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확신 평안을 주는 자 있다면 나는 실로 저를 하나님으로 믿겠노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는 실로 두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죽 오늘날 까지 내 신앙양심은 六·二五사변은 확실히 대한민국의 평화시책 (平和施策) 에 대한 공산군의 침략이 있으므로 그리고 민주주의 이상으로 공산주의의 죄악 부도덕이란 몇 갑절 큰 것이 있으므로 국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러시아자체 (露

旱災에際하여

盧平久

論壇

이글은 노평구씨의 旱災研究第三十一号 권두에서 발췌한 것인데 재앙속에서 우리가 스사로 생각하여야할 문제를 지적하고 있읍니다.

전화통자 따-윈은 사람이 죽는 순간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는 사실이 있는것을 확언한일이 있다. 이것은 무슨때문이냐? 나는 이를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때문이라고 본다. 사람의 임종의 장면에 동물의 주검에 대한 휴온한 생각 이상 실로 엄숙한 것이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나가는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각각 선악간 자기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였다 (로후五〇) 그리고 사람은 최후의 순간 뿐만 아니라 언제던지 모든종 죽은 불의의 재난 가운데서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자각 반성에 접하는 사실은 비단 종교적인 사람 뿐 아니라 파학적인 사람도 이를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재난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고 실로 하나님의 형벌과 같은 경고 혹은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작금 (昨今) 한국의 전 국민과 모든 피조물 밭 (田) 과 들 (野) 자연이 직사 (直射) 하는 태양밑에 함께 애타는 초조 불안 가운데있는 이 한재 (旱災) 는무슨 때문인가. 내 신앙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는 국민의 아니 더욱 관리 (官吏) 와 정치가들의아니 그 이상 더욱 하나님을 안다는 기독자 더욱 그리자들과 神學者 (神學者) 들 신학자 죄악 부도덕에 대한 하나

西亞自

保守

追憶記 金珍洙牧師

어디인지 천구를 만나면 얼어붙을 모르는 다정다감한 자애로운 사람이었다.

해방이 되자 교구를 노회로 복구하누라고 야단법석 지금까지 김목사를 미련모루한 동물로 여기는 동역자들이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였다. 해방되던해 가을에 이북 十二노회가 복구되자 곧 연합노회를 조직하고 그를 회장으로 취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해방된 땅에서 전보다 갯배나 더 강한 대정과 더부러 싸우지 않으면 아니되게되었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공산당의 교회탄압과 선도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三一절기념식 문제, 十一月三日 북한 선거사건등으로 북한 교회는 마침내 김일성 직회경무와 정면 충돌을 하게되었다. 김목사는 혁혁히 빛나는 두분을 함께도않고 정생과 같은 그들앞에 감연히 진리와 신앙의 행동을 거침없이 선도하며 박렬없이 실행하였다.

一九四七年 四月 북한 기독교를 대표하여 그는 김일성을 직접 찾아 신교의 자유의 확보를 요청하는동시에 그들의 정치의 부정당성을 날날이 갈파하여 권고하였다. 그의 열렬한 논두는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의 미행을 지적 권유하던 엘 선지자들의 그것을방불케하였다

一九四七年 四月十一日일 저녁 설교의 책임을 가지고 평양 서문의 예배당으로가는 도중에, 그는 드디어 보안대원에게 검속되어 가던 악명을 검은옷, 十二년의 옥중을 갑고, 六、二五사변 직전까지 무단히 변 종장에서 모여에 부대계획,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끝두를 계속하여왔다. 그러나 六、二五 전쟁과 아울러 공조원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공산당들은 백일전지 김목사를 단두대에 세우고 처살하였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려는 김목사님의 백 절 불굴의 신앙은 마침내 순교의 결론을 드시고야말았다. 그 피와 그 힘이 이민족과 우리교회를 다시 생활시킬 유일의 근거임을 생각할때 우리는 다시 머리를 숙여 김목사님의 인격과 신앙을 추모 숭앙하지 아니할수없다.(김양전)

保守側의宣言

이종성 목사

보수파 측에서 세계기독교연맹에 대항하여된 「국제기독교연맹」에서는 지난 주일에 첫의 장막뒤에 있는 무신론 학자들을 격멸하기로 결정하였는 조국 재건의날에 중대한 책임을 맡을 기독교의 문제를 그간 깊이 연구하려 합니다.

M·R·A 運動大会

세계인류는 말할수없는 불안과 고민을 느끼고있다. 그러면 이제 인류를 구원할 길이 어디있느냐 그런데 현대인은 그 구원이 무엇이냐 진리가무엇이냐 하는 지식의 문제보다 「어떻게 살가」하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다. 대중은 기독교의 교리나 의식에 대하여서는 염증을 이르렀다.

MRA에 운동은 현대인의 불안 공포와 현대인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三十년전에 유명한 옥스퍼드박사를 중심으로 일어난것이다. 본시 영국의 옥스포드 그룹 운동에서 시작한 것인데 한사람 한사람이 변화하여 절대사랑 절대순결 절대무사(無私) 절대정직을 지키기로 한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교파와 국가 민족과 계급을 초월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一국 백성 대가족」을 이루어가자고 전세계를 개변시키려는 신앙운동이오 도덕 운동이다.

MRA라는것은 도덕재재무장(道德的再武裝)이란 뜻이다. 이 운동에 대하여는 세계각국에서 노동자계급이나 식자계급이나 관리나 실업가를 망라하여 크게 반향과 찬동을 이루켜서 날로 참가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현상이며 그 동안 각국에서 돌려가면서 세계대회를 모이다가 금년에는 지난 六月二十九日로七月十日까지이국 미시간주 마기노 섬에서 열렸다. 세계의 三十四개국의 대표 一千三百七十九명이 지구상 모든 모든이에서 모여서 십이일동안 사랑과 천선중에 서로운 이데오리기의 실천과 체험을 발표하기를 계속하였다.

이 MRA 세계대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변홍규목사와 교 장경밥사가 참가한 일이 있으나 금년 대회에는 아무도 참가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본국에 있는 MRA임과 연락하기 위하여 XMCA연합회 총명린 씨가 근근 도일하리라고한다.

그 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공산주의로 더브러 싸우는 가장 위대한힘은 하나밖에 없는 성경이다.」

現實에 苦悶하는 教會

牧師 李鍾聲

인간의 지정은 늘 없이 살 책의 수단 방법 목적의 근원 한다는 현대인의 오신(誤信)의 결과를 얻어 전두사의 (戰爭狂) 이욕의 분열이 뒤따라진 후진사의 (後進社會) 는 현실주가 사회에도에 대하여 생활을 느끼고 세도는 세도의 이상세계(理想世界) 를 실상하게 되었다. 거기에 나라난것이 공산주의가 약속하는 이상적 사회인가 공산주의자가 주지자들의 경영에 참여는 대중 수지자들의 욕이를 놓지 되었고 보지 못한 현재계에 한심도 있어 지적 되었다. 이 이욕의 낡은 선동은 대욕과 욕심 아래아를 일을 고 일본에도 놓이었다.

대중과 자유를 찾는 백성는 하나님의 대행자(代行者) 라는 나라나다. 공산주의자들도 자기들만이 현실의 구세주같이 자임한 것이다. 단순한 신앙에서 지나인 기독교인들은 이에 크다란 시련을 받게 되었던것이다. 철학같은 이론체계를 갖인 신학자들도 선명한 인상에서 논리를 전개하는이가 계었다. 그때의 일본기독자들중에는 세가지 부류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지연상 그 설명은 약한다.

제일은 한국기독교회는 이같은 선동속에서 교단(연합회) 조직과 개세교회 문제를 정리하는동 내부적 혼란에 망서리고 지났다. 일반교포들은 본국의 욕하는 정세도 분별치 못하고 좌우익에 갈라져 격심한 대립상을 이루었다.

본국의신자와 달라서 재일본 한국기독신자는 공산주의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부족 하였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정체를 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평화정신과 자유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제이는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자기들의 정치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교회를 분열시키

只今은 깰 때다

西成教會牧師 金元治

사목 최원김

지금 부터 百二十七年전 이야기다。영국 학생들은 미국학생들에게 「지금은 자는것이 없고 모든 만물(萬物)까지도 잠들어 있다」 하물며 기독교만이 굳하게 생명 없는것같이 되어지 있다면 그것은 필요치 않다」이 말은 영국 산업혁명기의 기독청년들이 기독교의 각성을 재촉한 표합 소리였다。이 말세-지는 百여年전것이나 百여年지난 오늘에도 오히려 조선계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오늘의 주위와 환경을 살펴 보자。단일(單一)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南北이 분립하여 전쟁을 이르키고 정계(政界)는 대흥명 선거전을 위시하여 대립 분쟁을 하여 국내는 경제혼란상태에 빠지었다。그속에서 국민 도의는 떠러진데로 써어 떠러져 간다는 것이 우리귀에 생생나게 전달되고있다。

그러면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어떤가, 左右의 대립은 본국의 혼란에 그 무엇이 다르랴? 그사이에서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위험 신호, 아니 극경에 달하고 있는것이 아닌가?이 같은 비상사태에서 이 민족을 구출할자 누구랴? 그는 기독자일것이다。이렇게 스사로 인정도 하는것이다。그러나 그런 책임을 느낀다는 그 기독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울하루 반성하여 보자。

본국에서는 장로회만 보더라도 정용이니 이단이니 자유니 보수니 하면서 자기중심권해를 표정하여 싸우고있어 유사이래(有史以來)의 최대의 위기에 있는 국가와 민족을 구할수 있을가?일본에 있어선들 역시 성보의 차이가 아닐가?

우리는 국가양심이 되어 우리 민족이 잘못되어 갈때 성경에 비추어 바른길로 인도하고 실망에서 소망의 영원한길로 나아갈수 있도록하는 종연(從人)이 되어야한다。

그렇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왔는가, 본국문제는 재일교포의 문제요, 재일교포의 문제는 나의 교구신도(敎區信徒)의 문제로 제구재연 책임감을 가졌던가?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인 관념에서 지난것이 아닌가, 나는 이에 책임을 자책하는 바이다

천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한국도 지으셨고,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화염병(火焰瓶)을 투하리는 조선인을 위하여도 지신것이며 야이장사하는 소시민으로 부터 당파파흥을 하는 정치가들에게도 구속의 희생을 주셨다。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내 한국동족에게 이 사실이 실현될수 있을가 최인 十字만 있으면 소기목 모모라을 구원하셨다 하시인 하나님은 지금 의인(義人)을 요구하고 있다

伝道欄 하나님의 救援

그렇습니다。누구든지 예수를 믿는자마다(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그의 피와 사당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그자녀가 되며다시 완전한 사람의 지위(地位)를 회복(回復)할수있는 것입니다。이것을「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에는 아무 조건도 법도 없읍니다。선을 행하여야 된다든지 어떤 도덕이나 종교(宗敎)의 제도와 규칙(制度規則)을 지켜야 되는것이 결대로 아닙니다。아무든지 언제나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하면 그만입니다。누구든지 자기의 죄거와 현재 생활을 돌아보아서 잘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죄거를 청산하고 생길을 도리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만입니다。이것이 죄인이 구원을 얻는 만가지 조건이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얻는것입니다。이것을「회개」라고 합니다。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수 있다는것은 이 까닭입니다。이제 예수께서 친히 가지고 하지는 않을줄안다。현년전의 소학교에 있던 잔인하고 갑제적인 교육에 비하여 오늘의 학생들은 천정과 자유를 따르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이러한 발달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그 저도적 역할을 한것은 실로 교회의 교육이었었다。 여기에서는 자유와 천교가 제일 귀한 보배인 동시에 또 중요한 장점이었었다。

그러나 전제주의적 갑제가 없다고 하여 무 질서한 혼돈을 택하라는 것이 결코아니다 학생이 무질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것은 대단히 율린 생각이다。그들은 도리어 기름에 차고 협력과 좌목에 넘치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 따위 생각이야 말로 짜거에 사람들이 종을 부리 먹던 근성이었고 정치적, 산업적, 교육적, 교회적 가정적 모든 전제주의(專制主義)가 서로있은 원리인것이다 그것은 아주 알기 쉬운 이론이며 거기에는 아주 효력이 요란한 폭력, 협박, 경쟁, 뇌물 기타 불순한 인위적 부수물의 기계가 움직이고 있었다。그러나 오늘의 진보된 인류들은 모두다 이 따위의 피상한 갑제(強制)로 부터의 자유를 교육의 이러한 발달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그 저도적 역할을 한것은 실로 교회의 교육이었었다。 여기에서는 자유와 천교가 제일 귀한 보배인 동시에 또 중요한 장점이었었다。

그러나 전제주의적 갑제가 없다고 하여 무 질서한 혼돈을 택하라는 것이 결코아니다 학생이 무질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것은 대단히 율린 생각이다。그들은 도리어 기름에 차고 협력과 좌목에 넘치는 가정과 같은 원만한 질서의 생활을 동경하고 있는것이다。 그때서 거기서는 각자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말고 있는 몫 이상의 일을 하는것이다。필요한 행실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들은 연심으로 협력하여 이것을 실행할려고 할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정 많은 일을 임의로 할수 있게 되어 있다는 레도라든지 한가지 일을 끝 마치면 그것을 정리해 두는 레도라든지 옷은 제 곳에 곡곡 걸어야 하며, 비가 오면 비신을 신는다는것, 잠시간에는 반드시자야 한다는것, 남에게 친절하거나 남을 생각해 주는 행실은 반드시 누가 숨어서 보고 있다는것, 죄에 와서는 연심으로도 공부해야 있는 레도라든지 이 되는것은 자살적으로 위하여 본바탕이 이 소득을 위하여 자체의 가 그렇게 하여 리고 이 완성하여 이들지라도 이것은 무엇 아무 것은 우리는 는것이아니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로써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소개하고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형제가 있는데 하루는 작은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아버지 재산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제게 노나 주십시오」하는지라 아버지는 굳이 말류하였으나 말을 듣지않고 기어이 고집하므로 종내 그 재산을 노나 주었더니 그후 몇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몫에 돌아온 재물을 다 모아 팔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창기로 더부러 술을 마시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그리는 동안에 수중에 돈은 한푼도 없는데 마침 그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는 비로소 궁하게 되었다. 돈이 있을때에는 친구도 많은것 같더니 내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할수없이 그는 그곳에 어떤 사람에게 사정을 하여 몸을 부치고 살게되니 주인이 그를 들로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이는사람이 없으매 (주린지라) 돼지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저하나 먹을 수가 없으매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라 이 짊은이는 비로소 마음을 도리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넉넉하며 품군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지은죄를 고백하고 품군의 하나로 보아달라 하리라』 하고 곧 일어나서 고국(故國)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들의 얼이 엄려되여 밤이나 낮이나 늘 기다리고있던 아버지는 마침 아들이 거지꼴이되어 오는것을 멀리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반기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배반하여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기를 감당할수 없읍니다. 그저 품군의 하나로 아시고 먹이나 먹여 주시요」 아버지는 이말은 들은척도 아니하고 집안 사람을 시켜서 좋은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며 동내 사람을 청하여 잔치를 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참 기쁘다 다같이 즐기자」고 하였다.

이때에 당자 자신은 얼마나 기뻐했읍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집을 떠나 유리하던 이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같이 파연 불상한 신세이었으나 이제는참으로 행복된 사람이 되었읍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우리들은 정신적으로 보아서 다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서 방탕하고 서글프게 지내던 자식이 한 일은 할수 없이 하는것이 아니라 견딜수 없는 재미에 하는것이라야 한다. 전제 주의의 교육에서 이러한 성과를 기대할수 있을까?

연구문제

一、여러분이바느질 혹은 야구 같은것을 익힐 때에 어떤 방법에 따라 하는것인가를 분석하여 써보라. 상술한 아홉가지 방법중 어느것이 역할하고 있는가?

二、다음 문제를 토론해보라.

「학습은 오직 경험을 응하여서 이루어 진다.」

三、상술한 아홉까지 방법중 어느것이 어려운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이矛盾의解答을

——스가모 푸리존 問題——

R·Z·N生

작에하는D형 오늘은 해방七주년되는날입니다. 형제서는 언제나 해방의환희, 자유의즐거움 평화의 맛이니 하시는 말씀을 하시나 나는 그 참맛을 알못하면서 그 진경에 도달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너무나 모순이 많은까닭인가 합니다.

오늘은 수일전에 내가보고 직접 들으한 이야기를 대략기록하여 해설을 구하는바입니다 도-로-스가로 부리존 (평무소에는 우리동포二十九명과 대한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한두달 방문하러 로한것이 로집이 왕치 못하여 겨우 지난달에 처음 찾어갔로 지난十日 두번째 방문 하였읍니다.

형은 해방의환희를 말씀하시나 저들은 해방민족으로 그런 환희도고 없이 七년이나 지냈습니다. 저들은 해방민족이 아니라 패인국입니다. 전쟁에패배 받은 우리민족이 전것이 아닙니까 해방민족에게도 있습니까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들뿐만 아니고 일본사람이나 우리동포나대만사람이나이니 영미국사람이라도 하나님앞에는 죄인이요 그 책임은처처야할것을 압니다. 마는 저들은 그런논리에서의 책임이 아니고 미묘하고 억울한 재판으로 희자는사형도 받았고 지금의 二十九명은 종신형에九명, 二十년형에 四명 十八년형에 三명, 十五년형에 十一명, 十년형에 二명 입니다. 더욱히 저들은 三十九세를 최고로 젊은한국의 청년들 입니다.

C형! 한가지 더 알려드릴것은 저들은 전쟁의 비참을 아는자들이라는점과 그속에 그리스도의 진실하신 부르심에 응한자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은 그 부자유 속에서 참자유를 깨달은점을 나는 알건 하였읍니다 방문 갔던우리는 도도히 위로를 받았읍니다.

C형-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문제되는 지방 관염이 아닙니다. 저들은 내고향서 먼 全라道人이 九명 경상도인이四명 충청도인이十一명 경기도三명 평안도인 일명 합계남도 사람이 한명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일본서 재판을 받은이들이 아니고 연국재판을 우리十六명을 비롯하여 화합이十명, 호주성주가三명인데 일본과 사이좋은 미국놈이면 몰나도 영국이나 화란 호주놈은 일본에 언약이 없어 못 부리는 이이니 일본은 이런나라을 짜 모집하기 무서워 하는데서 우리일제의 석방의 길리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것 같소이다 평화, 자유 평등의 모습이 어기도 있는것 입니다.

문제는 다소 변두하였습니다 지난 四月二十八日에 일본국이 다수강화면으로 독립형제를 위하고 스가모형무소는 일본국에 이관되어 많은 전법이 석방의 우리일제의 석방의 길리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것 같소이다 평화, 자유 평등의 모습이 어기도 있는것 입니다.

문제는 다소 변두하였습니다 지난 四月二十八日에 일본국이 다수강화면으로 독립형제를 위하고 스가모형무소는 일본국에 이관되어 많은 전법이 석방의 우리일제의 석방의 길리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것 같소이다 평화, 자유 평등의 모습이 어기도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석방된자는 거기도 하면 논때 석방된자는 거나 저들은 해방민족으로 그런 낮습니다. 서울도 본명이 해방 받은 우리민족입니다. 전쟁에패 한채임은 일본이 전것이 아닙니까 해방민족에게도 있습니까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들뿐만 아니고 일본사람이나 우리동포나대만사람이나이니 영미국사람이라도 하나님앞에는 죄인이요 그 책임은처처야할것을 압니다. 마는 저들은 그런논리에서의 책임이 아니고 미묘하고 억울한 재판으로 희자는사형도 받았고 지금의 二十九명은 종신형에九명, 二十년형에 四명 十八년형에 三명, 十五년형에 十一명, 十년형에 二명 입니다. 더욱히 저들은 三十九세를 최고로 젊은한국의 청년들 입니다.

C형! 한가지 더 알려드릴것은 저들은 전쟁의 비참을 아는자들이라는점과 그속에 그리스도의 진실하신 부르심에 응한자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은 그 부자유 속에서 참자유를 깨달은점을 나는 알건 하였읍니다 방문 갔던우리는 도도히 위로를 받았읍니다.

C형-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문제되는 지방 관염이 아닙니다. 저들은 내고향서 먼 全라道人이 九명 경상도인이四명 충청도인이十一명 경기도三명 평안도인 일명 합계남도 사람이 한명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일본서 재판을 받은이들이 아니고 연국재판을 우리十六명을 비롯하여 화합이十명, 호주성주가三명인데 일본과 사이좋은 미국놈이면 몰나도 영국이나 화란 호주놈은 일본에 언약이 없어 못 부리는 이이니 일본은 이런나라을 짜 모집하기 무서워 하는데서 우리일제의 석방의 길리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것 같소이다 평화, 자유 평등의 모습이 어기도 있는것 입니다.

문제는 다소 변두하였습니다 지난 四月二十八日에 일본국이 다수강화면으로 독립형제를 위하고 스가모형무소는 일본국에 이관되어 많은 전법이 석방의 우리일제의 석방의 길리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것 같소이다 평화, 자유 평등의 모습이 어기도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석방된자는 거기도 하면 논때 석방된자는 거나 저들은 해방민족으로 그런 낮습니다. 서울도 본명이 해방 받은 우리민족입니다. 전쟁에패 한채임은 일본이 전것이 아닙니까 해방민족에게도 있습니까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들뿐만 아니고 일본사람이나 우리동포나대만사람이나이니 영미국사람이라도 하나님앞에는 죄인이요 그 책임은처처야할것을 압니다. 마는 저들은 그런논리에서의 책임이 아니고 미묘하고 억울한 재판으로 희자는사형도 받았고 지금의 二十九명은 종신형에九명, 二十년형에 四명 十八년형에 三명, 十五년형에 十一명, 十년형에 二명 입니다. 더욱히 저들은 三十九세를 최고로 젊은한국의 청년들 입니다.

C형! 한가지 더 알려드릴

祖國訪問記 (4)

金在和

동반도 금수강산 내 조국이 간곳마다 폐허뿐인것을 볼때 의분과 눈물이 납니다。재화를 면하였다는 부산시내는 팔도 (八道) 인총시장 같고 각지방 중습 언어연구자의 표본실 같게도 생각 됩니다。

三十만시민을 위한 부산시의 시설은 현재 一百五十万도 될 신 듯는다는 인구를 기르고있다하니 상상도 할수 있는일이 의다。전일도 말씀 드렸으나 이 같이 많은 시민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지내는지는 수수께끼 같은 현실 입니다。

우물가에 둘러선 행열, 세점에 몰려선 아낙네들 역전에 맥 없이 앉어 있는 지게꾼 길가에서 모가지에 새깜어진 구두딱는 아이들, 신사와 숙녀같이 세리고 금제품을 매매하는 사람들 야채장사, 파실장사, 고기장사등 이렇게 저렇게들 살고 있읍니다。그래도 이들 골에는 패복자들과 같은 수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뿐인것을 알수 있습니다。저들의말은 원한의三八권이 더지는날이면 죽어도 눈을 감을것이고 살어도 보람이있으리라는 것입니다。그것도 자유조국의 통일을 바라는정성입니다。

거리에는 요사히 대통령 선거때문에 골목마다 크고 적은 포스타ㅡ가 붙어 있는데 전달 싸우는 시민의 선거관심은 놀라운하가 있읍니다。이런 정은 우리민족의 사랑할수 있는 부분인줄 압니다。전번 총선거때에 우리나라를 시찰한 국제연합 어떤대표가 「한국인의 일반적 정치의식 수준이 높은데는 놀랐다」한 말은 과대 평가는 않인듯 합니다。

대통령 입후보자는 四명인데 이승만박사가 재선될것은 결정적현상입니다。일본신문은 한국의 완만(독재자)이라 하여 약평을하나 일본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 불만스러운 표현일것이고 국내에서는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공산계열사람들은 미제국주의 (米帝國主義) 의앞재비라고 하나 미국의 권면이 이번 계엄령문제에 강경하였으나 그런말들은 마이동풍 같이 들지않고 민족의 행복을 위한 듯을 관철하려할때 주한 미국대사 (韓國美國大使) 가 물러가는데 이로헌으니 그의민족적 양심을 의심할바없습니다。

부통령 문제에 있어서는 이범석장군의 당선이 우세하여서 보이나 기독교인들은 그를 찬영하지 않읍니다。그 이유는 그의 배후에 소위 난군파라는 우익 전제 (右翼專制) 사상이 농후하다는것입니다。그가 전에 국무 총리로있을때에 저어빠진 유ㅡ겐트식을 채용하여 문제를 이르킨 사실은 그의 정색의 하나의 표현이었다고들 보고있읍니다。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에 이 같은 극우적 전제정치는 환영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될가 박모 (朴某) 는 이윤영씨가 될것이라고 하면서 기독교계에 여론을 이르키고 있는데 이윤영씨는 전에 사회부장관시대에 산대로 일려졌기때문에 관심이 약한듯하고 심계원원장이며 조선신학대학학장인 함태영씨가 여론에 올랐습니다。전일기독교연거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은 모양입니다。부통령에 입후보한 분중 함태영 이윤영 이갑성 임영신 (女) 씨는 상공부 신석호 상공부 병원나 여자로 은 우리나라에서 일반 유권자 중의 기상조인듯하고 一운동시의 三十로 혁명시대인물 있으나 건설기의 선이 약하여 보면 기독교육에

東京通信 (7)

一田澤榮一

정읍 요고 월세다오

在日本韓國Y 夏令會를 앞두고

재일본 한국기독교청년회에서는 오는 九月一二兩日간 동경시의에서 하령회 (夏令會) 를 하기로 되었다。이런 회합은 예에에 없던 회합이다。있어야할 것이였으나 없었던것은 부꾸러운일면서 이제라도 이런 집회를 하게되었다는것은 반가운일이다。

(一)기독교청년회에는 일백수십명의 회원이 명부에 적혀 있는데 실례의 말씀이나 기독교청년회의 실태를 아시는듯도 하고 모르시는이도 계신듯 하다 그 책임은 회원각자에게도 있고 상무부책임에도 있는줄 안다。우리는 이 문제를 오랜시일을 두고 문제시 하였기에 여기서 더 긴 말은 그만 두려고 한다。이번 회합은 그런 말은 할대로 다ㅡ하였으니 비파에서「건설에 옴기자」는 점에있는것이다。

백여명 회원중에는 三分之一정도가 학생신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학생생들 중에서 금년까지 지나간 수년내에 국제적회합에 참석한이들이 二十명(인원수로) 도 넘는다 그들중에도 파거에는 재일본 한국기독교청년회의 무기력을 비판한이도 있다 그러나 국제적회합에 참가하여 보고 듯고 의론하고와서 하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합심하여 서로 도웁자 우리는 합하여 서로 도으면 일욱이 있을것이다 라는 반성에서의 확신말이 있었다。

(二)이번 회합은 이와같은 열정에서 구상된것이다。물론 종합하는 노력은 몇사람이 하였으나 배후에는 이런 생생한 의견이 떠 바치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참말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아니한다。이번 모임에는 주인장이 없다 참가자 각자가 주빈이다 참가하는 형제자매들의 교통비와 양식은 상호부조제로 하기로 하였다。회의의 내용은「세계정세와 기독교청년학도들의 과제」라는 강연에 시작하여 국제적회합에 참가한 여러분의 체험과 반성점의 보고를 듯고 「조국문화와 기독청년운동사」를 들은후에 건설적 비판과반성의 좌담회가 있을것이고 결론적인강연을 듯기로 되었다。

그 사이에는 재일본 한국교회청년교역자들의 인도하는 경건회시간이 있다。

(三)우리는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문자에 포박되어 염려하지 말고 또 쓸데없는 노예노덕에 구속되이 없이 건설을 위한 의견을 각자이 생각하는 그대로 토로하여 보지는것이다。여기는 권위나 구속이 없을것이다 그 있고 능온이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여왔고 나는 이렇게 나갈 결심이다는 이야기를 이다。다만 남의 이 여기고 자기 요하게 성명하는 제한이 된분이다

재일본 한국기는 해방七年에 참인것만큼 서슴지가 않인듯하나 의에 과감한 전수자 (數學) 적으 YMCA의 창설들이 그 몇사람 생각하면 義의勇 않을줄 안다。우 宰先生 이 「조러나라」하신 말 박성하도록 하자

다니엘서

강순

믿는다는 예수쟁이
금나간 향로ㅡㅡ 형제여
믿기에 우리가 「살았다」 더니
치가 떨리는 이땅
지금은 저금은
이땅에게도 부끄럽기만하다。

★

우리에게 남은것이 무어냐
우리에게 머리둘곳이 있단말인가
우리때문에 얼마나 장해가 되느냐
종의무리가 아니면 돼지
가룡유다가 아니면 박쥐나 아닐가

★

벌발아벗 땅에도 철철이
어제면 꽃이 흥성이 필수있고
꽃피듯 곳곳이 량안한 교당이 서고
가슴마다 하늘향한 찬송이 퍼져가나

★

입으로 심기지나 않나
인민의 처참을 파지나 않나
건나라에게의 감사에 동자도 애워주고
날복들복 공교로히 입고다니지나 않나

★

사자 아가리에 찢기는 겨레
진정 하로세번 기도가
멸망의 배속에 감금되
간구할수밖에 없는
간구밖에 남지않은 우

★

모든일을 비롯하려는
가지가지 바퀴가 도는
온전히 마치지못한

★

북으로 창을 열어제
불난나라ㅡㅡ 어머니
진정 하로세번 기도가

東京通信(7)

—田澤榮—

K형

오래 막혔었나이다。 얼마전에 보내주신 형의 글월은 잘 반가히 고맙게 읽었는데요。

형의 글월을 읽으니 형의 다정한 얼굴을 대한듯 형의 음성이 들리는듯 더욱 형의 그리워집니다그려

K형 오늘은 八月十五日이외다。 지금은 교요한 삼 일본당 벽창에 앉아서 생각을 하니 가슴에 사모치는 감격은 무엇이라 말할길 없나이다。

기구한 우리의 과거의 …라리고 지긋지긋한 모습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지내갑니다。 지금 이시간에 형이 이곳에 있든지 내가 형의 사랑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웃음과 눈물에 뒤섞인 이야기가 많을고、

오늘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리는 해방 칠주년 광복절 기념제전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어떠 동포의집을 찾다가 오니 퍽 고단합니다。 그래도 자려고 누어도 잠이 아니오는군요 벌서 열두시가 넘었는데……

게다가 「요나끼 소사」 (람국수상사)의 길게 뿜는피리소리가 왜 그렇게 처량한지、 그녀석이 왜 하필 어맘때원 꽉 내 밤밖으로 지나가면서가 뜨이나 향수에 심산한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해줄게 무언공 또게 다가 멀리서 흐미하게 들리는 성신차가 달리는 소리 앞집에서 람세 덤거덕 멀거덕 인쇄기계가 돌아가는소리、 내 귀에는 모두가 가슴이 불안하고 불쾌하게 만들어주는 거리가될 뿐 입니다。

K형

일본사람이 모두 삭삭하고 친절하지 않어요 형도 아시다시피。 길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비를 만나서 우상을 빌어달라면 서슴지않고 빌려주는것이 이 사람들의 예의지오。

이런것은 예로부터 일본에비가 뜸아서 동네 사람끼리 우상을 빌려주는 습관이 있다고도 하지마는 어쩐든 이런연은 친절은 문제가 않됩니다。 그나마 외국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한층 친절하게 해주면 그사람들이 그 맥이 한국사람인줄을 알면 싹 거절을 한답니다 이것은 이회관에 같이 계신분이 당한 사실 이야기라오、 물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사람들의 책임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일본 사람의 소위 친절이라는것이 그리 좋은 도의심에서나 우는 교양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는것은 짝실합니다。 자기네끼리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틀리면 곧 얼굴을 붉히는 사람들이니까요。

K형

외국에 나오니까 고국의 친구가 더 그립고 객지에 지내보니 내 가족이 더 귀하고 그리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당초에 믿을수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이 나거든요、 미국사람도 「일본사람이 재미는 있으나 믿을수가없다」고 한답니다 하여튼 너머도 의리가 없고 잔인하고 악착한 백성이야요 서양사람들이 일본 공원에 종이조각이 버려진것을 보고 일본문화는 아직 열두살까리밖에 못된다고 하련지마는 그까짓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남녀호탕을하는일이 있고— 이것은 내가 구주에 갔다가 천히당한일인니다마는—그것은 덮어놓고 글세 국민학교 교원이라는 여자가 제 남편을 죽여서 도막도막 잘라서 버리는 일、 제자식 제 손주를 마치로 때려죽이고 제 네대네를 목을 졸라죽이는 따위 끔찍끔찍한 일이 하로 건너 신문에 나니까 또 그리고 (언제 자세히 말슴들일기회가 있겠마는) 「조선사람학살」 문제까지 있으니 어떤 때는 여기서 살기가 무시무시한 생각이 나지않어요。

(三면 九단에서 계속)

하려한다。 일방동포들에게 격정은 끼치지 않으려하나 우리의 일에 이해)있는 관심을 기우려 주기 바란다

K형 이 모순된 현실에서 환희를 어떻게 수 있사오리이까? 나는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스사로 생각합니다。

(六)…은이 기독교인인데 임영신씨는 상공부 초대장관을 지냈으나 여자로 부통령된다는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심녀보담도 일반 유권자들의 인식면에 시기상조인듯하고 이갑성씨는 三一운동시의 三十三人中 한분으로 력영시대인물로 존경은받고 있으나 건설기의 정치가로서는 선이 약하여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측에서는 함태영씨와 이윤영씨게 표수는 갈라질것인데 이범석씨의 대한정년단이라는 지반이 활동할것이 우려 됩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제일은 것은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권리가 강하다는 정입니다。 한국 기독교계가 동일된다면 모든문제를 처리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도들의 각성과 주의가필요한줄 압니다。(八月十三日)

信仰

—金順—

(三면 …에서 계속)

게 나갈 결심이고 실행하고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보자는것이다。 다만 남의 이견을 조중히 여기고 자기뜻을 간단 명요하게 설명하는것만 범위와 제한이 된뿐이다。

재일본 한국기독교청년회로서는 해방七年에 처음 여는 회합인것만큼 서슴는점이 한두가지가 않인듯하나 우리는 선과의에 과감한 전진뿐 할것이다 수자 (數學) 적으로 적은수이나 YMCA의 창설시대와 창설자들이 그 몇사람이 였던가를 생각하면 義의勇氣는 좌절치 않을줄 안다。 우리는 故 李相宰先生이 「조선 청년아 이러나라」하신 말슴을 銘心하고 반성하도록 하자 (NA)

나가 결심이고 실행하고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보자는것이다。 다만 남의 이견을 조중히 여기고 자기뜻을 간단 명요하게 설명하는것만 범위와 제한이 된뿐이다。

재일본 한국기독교청년회로서는 해방七年에 처음 여는 회합인것만큼 서슴는점이 한두가지가 않인듯하나 우리는 선과의에 과감한 전진뿐 할것이다 수자 (數學) 적으로 적은수이나 YMCA의 창설시대와 창설자들이 그 몇사람이 였던가를 생각하면 義의勇氣는 좌절치 않을줄 안다。 우리는 故 李相宰先生이 「조선 청년아 이러나라」하신 말슴을 銘心하고 반성하도록 하자 (NA)

基督新報發展

祝賀

貿易商

株式會社 天友社

社長 全澤瑀

本社 大韓民国釜山市光復洞一街四一
電話四八四八・三四一〇
東京事務所 東京都千代田区九ノ内一丁目
ホテル東京三二三号室
電話(23)一四四二一—四四一九内線五五八
一五四一八・二七七二(直通)

新本・古本のキリスト教書は

友愛書房へ

好評書案内

黒崎幸吉著 新約註解

マタイ傳 三五〇圓
ヨハネ傳 三五〇圓
ルカ傳 三五〇圓
コリント前後書 三〇〇圓
ヘブル・ヤコブ 三〇〇圓
ペテロ・ユダ
ロマ書・ガラテヤ書 三五〇圓
ヨハネ默示錄 三〇〇圓
ヨハネ書翰 三〇〇圓

村田四郎著

ロマ書註解 三九〇圓
ルッター著・黒崎譯
ガラテヤ書註解 三〇〇圓
キリスト教大字典 四九〇〇圓
聖書大字典 二八〇〇圓

友愛書房

東京都千代田區神田神保町一—四四
電話神田(25)六三二七番

信用取引